신라 최대 사찰 황룡사의 모든 것을 본다



황룡사 주제 최초 · 최대 특별전
유물 6백여 점 한자리에
CG로 구층목탑 금당 내부 구현
옛 모습 영상으로 감상 기회
드론 이용한 부감 영상도

국립경주박물관 기획특별전 '황룡사'
5월 25일(금)부터 9월 2일(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우리 불교의 큰 아쉬움 중의 하나인 경주 황룡사.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를 주제로 한 최초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유병하)이 5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특별전 '황룡사'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황룡사찰주본기(보물 제1870호) 등 4만여 점 출토 문화재 가운데 엄선된 6백여 점을 한 자리에 모아 선보이는데, 황룡사를 주제로 한 최초의 특별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라의 3대 보물 가운데 구층 목탑과 장육존상 2개를 보유하고 있던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다. 황룡사지는 1968년부터 1973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황룡사실을 상설 운영하면서 종래 1백여 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이번 특별전에서는 새롭게 5백여 점을 더하여 황룡사의 전모를 가늠할 수 있는 6백여 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아울러,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출토 유물을 새롭게 해석하고 조명하는 명실상부 최초 · 최대의 황룡사 특별전이라 할 수 있다.

전시는 1부-궁궐에 나타난 황룡, 2부-호국의 상징, 구층 목탑, 3부-신비의 상징, 장육존상, 4부-가람의 일상으로 구성했다.

△'1부-궁궐에 나타난 황룡'에서는 황룡이 세상의 중심이자 최고를 의미했다는 점, 황룡사가 왕경 전체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으며, 신라 사찰의 정점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2부-호국의 상징, 구층 목탑'에서는 보물 제1870호 찰주본기와 함께 심초석 출토 사리장치와 주변 수습 공양물 등 구층목탑 관련 유물들을 전시한다. 도굴 당했다가 회수된 심초석 사리봉안 장치를 소개하며, 신장상이 그려진 외함 벽면은 1984년 발간된 보고서에 화질이 좋지 않은 흑백사진이 수록되었을 뿐, 컬러사진도 공개된 적이 없던 것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2면을 공개한다.

△'3부-신비의 상징, 장육존상'에서는 출토 불상 및 금당 출토품을 전시한다. 몽골이 침입하여 불태워버린 후 사라진 주존불인 장육존상은 그 높이가 3.79m나 되는 대형불상이었으며, 종각에 걸어졌던 황룡사종은 4.14m로 성덕대왕신종보다 더 컸음을 실물크기 평면 구조물을 통해 보여준다. 중금당 주존불인 장육존상의 머리 일부, 동금당 주존불로 추정되는 소조불상의 손가락을 전시함으로써 신라 3대 보물의 하나였던 장육존상을 더듬어 본다.

△'4부-가람의 일상'에서는 국내 최대의 황룡사 망새와 함께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1만 여점의 기와 중 종류와 형식별로 1백여 점을 선별하여 웅장했던 사찰건축을 살펴보고, 아울러 토기와 자기, 금속품 등을 통해 사찰의 일상을 유추해본다.

토기에도 브랜드가 있었고, 급한 볼일을 보는 데 쓰기 위해 휴대용 소변기의 미니어처, 사찰의 밤을 밝히던 등잔, 당대 세속의 물품에 비해서는 소박했던 도자기는 황룡사 사람들의 일상을 이야기해준다.

높이 85cm나 되는 대형 항아리와 30cm 길이에 달하는 대형 쇠못과 대형 경첩, 182cm나 되는 망새와 화려한 장식의 녹유전돌, 다양한 문양의 수막새는 국가사찰 황룡사의 위용을 보여준다.

전시에 앞서 총 3회에 걸쳐 주보돈 前 경북대 교수를 비롯하여 역사 · 미술 · 고고 및 건축 등 관련학계의 전문학자 7인의 자문을 통해 고증을 강화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연구실의 황룡사 건축 연구 성과 등을 비롯하여 각계의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이 밖에도 CG를 통해 구현한 구층목탑과 금당 내부의 옛 모습을 복원해 영상물로 보여준다. 황룡사역사문화전시관 제작 CG를 바탕으로 하고 수원대학교 양정석 교수팀이 고증 · 제작했다. 또 하늘에서 넓게 내려다 본 황룡사지의 모습을 담은 드론 동영상을 대형 고화질 장비로 상영한다. 또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에 담당 큐레이터의 전시설명회를 개최한다.


황룡사 찰주본기(보물 제1870호)


국내 최대 황룡사 망새

현대 불교미술의 새로운 방향


기억의 간격-용선도(부분)

서윤희 화가 '기억의 간격' 展
인사동 와담빌딩 서윤희 작업실
6월 19일(목)~30일(토)

동양화가 서윤희 작가가 현대 불교미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전시회를 연다. 서윤희 화가는 6월 19일(목)부터 30일(토)까지 자신의 새로운 작업실인 서울 인사동 와담빌딩에서 오픈 스튜디오 展 '기억의 간격'을 개최한다.

서윤희 화가는 '기억의 간격'이라는 제목으로 15년 간 회화를 비롯하여 영상 및 설치미술을 해왔다. 자연의 흔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다층적 시공간을 다루는 작업에 염료를 비롯하여 자연 재료를 사용해 시간의 지층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업실을 인사동으로 옮긴 후 여는 오픈 스튜디오 展으로, 2017년 이스탄불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들과 불교적 도상을 결합한 수묵화들을 전시한다. 수묵화에 번지는 한지의 얼룩과 자연스러운 추상성은 불교 상징의 도상들과 어울려 한 폭의 미래적 후불탱화를 연상케 한다. 이는 전통 회화에 불교적 도상을 적용한 현대 불교미술의 새로운 확장으로 보인다.

서윤희 작가는 이화여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9회 중앙미술대전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4기선정작가로 활동하였으며, 2015년 56회 베니스비엔날레 특별관 초대작가, 2017년 15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특별관 초대작가로 참가하는 등 국내 주요 기획, 초대전에 참가했다.

박재완 기자

이루향서원 침향특별전

'천상의 향을 만나다-란사대'
이루향서원 6.15~7.1

일본의 란사대 침향을 만날 수 있는 침향특별전이 열린다. 이루향서원은 중국향도협회와 중국향문화연구중심 협찬으로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루향서원에서 침향특별전 '천상의 향을 만나다-란사대(蘭奢待)'를 개최한다.

란사대(蘭奢待)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향으로, 최고의 향기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이다. 길이 156cm, 최대직경 37.8cm, 무게 11.6kg의 나무토막처럼 생긴 란사대는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인 도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이 소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제 품향회에 쓰인 란사대를 직접 감상할 수 있다. 또 전시품 중 명향 21종이 각각 한지에 곱게 싸여 상세한 설명과 함께 들어 있는 마키에 목제함도 전시된다. 마키에는 옻칠 위에 금이나 은가루를 뿌리고 무늬를 그려 넣은 일본 고유의 칠기공예기법이다. 더구나 마키에 목제함의 아름다움을 넘어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담긴 명향들이다. 200여 년이 넘은 것으로 그 본래의 가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시기와 주인 이름, 당시 품향회 소감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기록물, 귀중향품, 더 나아가 소장품으로서도 가치가 높다. 그 외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각종 침향과 백기남, 황기남, 녹기남 등의 다양한 기남이 전시된다. 중국 침향조각 명장의 관세음보살과 달마 침향 조각품, 침향과 기남 염주 등 여러 가지 향품(香品)들도 전시 및 판매된다.

물에 가라앉는다고 하여 침수향(沈水香)이라고도 불리는 침향은 10년 이상 된 동남아시아의 수종(樹種)이 벼락을 맞거나 벌레가 먹는 등 상처를 입었을 때 나오는 수지(樹脂)로 만들어진 물질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등급이 높은 침향이 이미 황금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으며, 침향 중 최고품을 기남(奇楠)이라고 부른다.

이번 전시회 동안, 중국향도협회 회장인 왕강 선생에게 침향과 기남의 감별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최상품의 침향과 기남 샘플을 눈으로 직접 보고 향을 맡으며 감별하는 시간을 갖는다. (6월 15일 15:00~16:00 / 6월 18일 15:00~16:00) 문의 070-4046-1666.

박재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LED전구 국산인증(정품)






안전인증 ISO 9001 인증기업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